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9월 1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산업기술기반팀 정해권 과장(2110-5201), 강규형 사무관(5202)		

지경부, 3단계 개방型 기반활용 사업추진

- 오프라인·개방형 통합 안내시스템·장비아울렛 운영-

□ 지식경제부(홍석우 장관)는 '12.9.14일 연구장비의 활용 제고를 위하여 '장비 활용성 강화사업'의 일환으로 연구장비시스템 구축 공개 입찰을 금년 10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힘

○ 同 사업은 ① 공동장비 활용률 제고, ② 유휴장비 재활용, ③ 장비 사용 운용인력 양성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행함

< 사업 총괄도 >



○ 지금까지 정부는 장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원을 했으나, 同 사업을 통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자, 개발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임

< 공개 입찰계획 >

·홈페이지 공고 : 지경부 (http://www.mke.go.kr)와 산업기술진흥원 (http://www. kiat.or.kr)

·일정 : 공고('12.9.14일) → 접수('12.10.9~10.15일, 전산등록 : 접수기간과 동일함) → 사업자 선정평가('12.10.24일) → 주관기관과 협약체결(10월末)

□ 同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며,

○ (1단계) 금년 9월 중순부터는 旣 구축된 DB를 활용하여 공동 장비 활용률과 유휴장비 활용 등이 가능토록 오프라인*으로 우선 시작할 예정

* 대표전화 : 02-6009-8440, 연구장비 활용 상담창구 [ESC - Equipment Serivce Call) → 非응대시 → Happy Call]

- 아울러 장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장비관리·사용 등의 교육도 강화하여 장비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임

- 특히 분기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 이용자들의 경험담과 관련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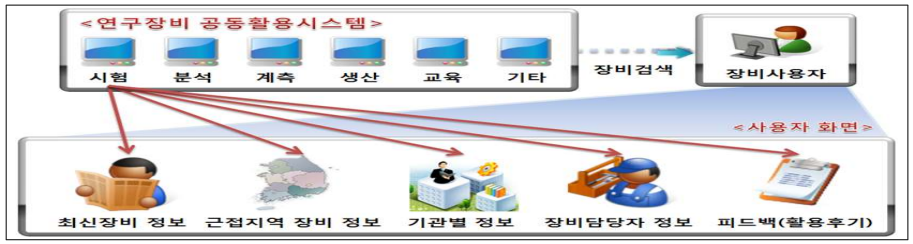
○ (2단계) '13.6월까지 '공동장비 활용률 제고'*를 위해서 구축된 장비를 필요한 기업 등이 활용가능토록 '개방형 통합 안내시스템'을 구축 할 예정임

* 지식경제 연구장비 18,000종 설치장소, 사용가능일 원스톱 안내 등
'00~'11년 도입 장비 18,000건 중 10,850건(60.2%)이 공동장비임, 활용률 5% 증가시 연간 800억원 [10,850 × 0.05 × 1.5억원(평균價)] 절감효과

- 현재까지 장비이용자는 설치된 장비의 설치장소, 사용가능일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장비를 신규 구매하거나, 개인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받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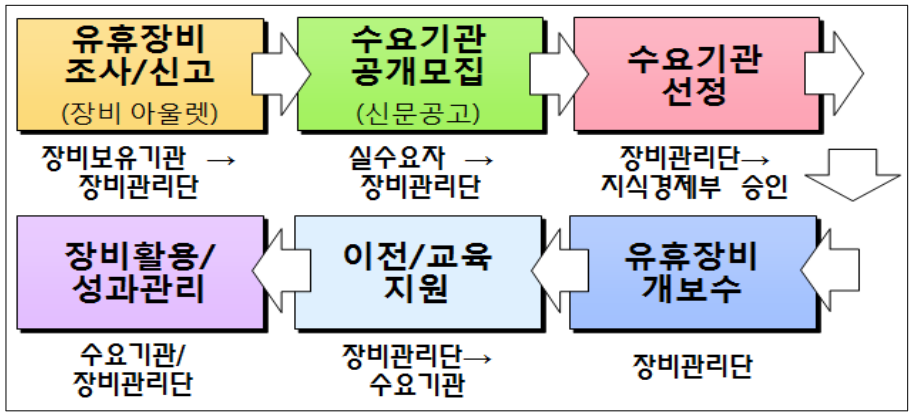
- 통합 안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사용자는 언제,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가장 저렴한 비용 (짧은 거리, 빠른 시간, 낮은 서비스 이용료 등)으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

< 개방형 통합 안내시스템 例 >



○ (3단계) ‘13.9월부터 장비아울렛 온라인시스템 등을 포함한 ‘유휴장비 재활용시스템’을 구축하여 온·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

< 유휴장비 재활용 사업 例 >



* 다만, 수요기관이 선정된후 유휴장비 소유자인 보유기관과 수요기관과의 적절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자산이관 등에 관한 부대업무를 지원할 예정

- 유휴 장비도 DB를 구축하여 기업, 연구소 등에서 성능저하, 노후화, 요소기술의 향상 등의 이유로 활용도가 매우 낮거나 방치된 장비*를 실수요자**에게 이전, 개·보수 등을 지원하여 재활용률을 제고할 계획

* 해체폐기 : 62.1%(8,409종), 매각 : 21.2% (2,864종), 무상양여 : 13.6% (1,844종) (국과위 ‘05년 290개 연구기관 대상조사) ** 例 : 중소기업, 마이스터高, 폴리텍大 등

< 절감 효과 >

·(가정) 유휴장비 약 100건 보급 시 100×1.5억원(평균價) = 150억원 절감 효과

□ 향후 정부는 시장상황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장비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‘산업기술기반구축 로드맵’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기반구축사업 추진시 활용할 계획임

참고 1 연구장비 활용성 제고 사업 개요

□ 추진 배경

○ 국가 R&D 투자 확대에 따라 장비 구축예산도 증가하고 기술창조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연구장비도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

* 지경부는 최근 6년간 국가 R&D예산의 33%(23.5조원)를 집행, R&D예산의 약 8%(1.9조원)을 연구장비 구축(1만 2,000건)에 투자

○ 연구장비도 R&D사업평가관리 체계와 동일하게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연구장비를 소유하지 않고도 공동 이용의 전략이 필요

□ 추진 사업 (5년간 年15억원 지원하여 총 75억원 지원)

< 사업 총괄도 >



○ (유휴불용장비 지원) 장비아울렛을 상시 운영하여 유휴·불용장비 등을 개보수하여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중개하는 시스템 구축사업

○ (공동장비 활용) 시스템 검색을 통하여 활용 가능한 장비 정보를 가지고 가장 근접 지역, 사용가능한 장비를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사업

* 장비사용자 → 시험, 분석, 계측 등 분야 선택, 시험선택 → 최신장비 정보, 근접지역 장비 정보, 기관별 정보, 장비담당자 정보 등을 안내

○ (운용인력 교육, 평가시스템 구축 등) 장비관리 노하우를 교육하고 오프라인 운영을 온라인화로 대체하는 시스템 구축사업

참고 2 기대 효과

□ 경제적 : 단순 유휴장비 대체, 공동 이용활용에만 경제적 효과를 제시

＊ 장비 유지보수사업자의 시장창출, 임대비 절약 등을 고려하면 더 클것으로 예상

○ 유휴장비 이전, 공동 이용장비 활용 등을 촉진에 따른 외산 연구장비 수입 저감효과 및 신규·중복투자 방지로 예산 절감 가능

< 예산 절감효과 >



＊ 가정 : 유휴장비 800건 활용, '00~'11년에 지경부에서 도입된 18,000건 중 10,850건의 공동 장비 중 5% 활용

＊＊ 18,000건 중 외산장비 9,727건(1건당 평균 1.5억원)으로 구축예산 1조4744억원소요

□ 기술적

○ 국내 R&D 수행기관의 연구 수행기간 단축 및 신규 R&D 기회 창출

＊ 필요한 연구장비 확보시간 단축, 절약된 장비구축비로 新R&D에 투자

○ 국내 R&D 수행기관의 기술력 향상으로 민간 R&D 투자가 활성화

＊ 기술개발의 3요소(인력, 장비, 개발) 중 하나로 민간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케 하여 민간 R&D 활성화에 기여

□ 사회적

○ 장비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이용함으로써 기관간, 지역간 연구장비의 수요 불균형을 해소

＊ 연구장비를 소유하지 않고 공동 이용의 개념으로 연구장비를 제공